

[사회]

영암 내연남녀 사망 원인 '논란'

경찰 "유서·정황 미뤄 동반자살 한 것" 결론 유족 "필체 다르고 의문점 많다" 재수사 촉구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내연 남녀에 대해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내연 남녀가 동반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있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린이 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경 영암군 영암읍 동바우들 저수지 인근 길가에서 불에 탄 고급 외제 승용차(벤츠)가 발견됐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장암 2구와도 2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이다.

“그동안 자녀와도 잘 지냈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성격이어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잠적한 이를 동안 친척 언니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치만을 알린 점 ▲잠적하기 전 추진 중인 사업이 다른 사람의 배신으로 물거품 돼 갈등이 심하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금전 문제로 인한 타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글씨가 아내의 필체와 다른 점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고풍스런 분신자살을 택한 점 ▲분신 자살임에도 차량 뒷좌석에 편안한 자세로 나란히 앉아있는 점 등도 동반자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K씨는 “경찰이 물증으로 내놓은 유서도 아내의 친필이 아니고, 유서 모퉁이에 아내의 이름과 함께 서명만 돼있다”면서 “이처럼 의문점이 많은 데도 경찰이 사건 발생 순간부터 동반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3차례나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영암= 박진표기자 lucky@

교육장과 학교, 신민관계라니...

목포 한 중학교 도덕시험 문제 물의

목포시내 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도덕 시험에 지역 교육장과 학교간의 관계를 신민(臣民·군주국에 있어 관원과 백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목표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에서 지난 7일 치러진 1·2학년 중간고사 도덕과목 문제중 교육장과 학교를 ‘신민관계’라고 지칭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의 예시에는 ‘학교가 수학여행 행선지를 제주도로 결정했지만 교육장이 경주로 변경하고 학교는 그대로 받아들여 왕과 신하의 관계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답을 고르는 문항에는 ‘시민’ ‘가신’

신민’ ‘영주’ 등을 제시했으며 이 문제에는 1학년 274명과 2학년 280명 등 모두 550명이 응시했다. 또 이 문제를 출제해 해당 교사는 시험 예비시험지에 4·15 교육자들과 조치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단식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출제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물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학생들도 생소한 문제로 인해 도덕과목 평균 점수가 52점에 불과해 학교측은 오는 17일 도덕과목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눈부신 햇살 5월 16일 (음 4월 12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10~25℃
주요	구름 조금	10~21℃
목포	구름 조금	13~21℃
여수	구름 조금	9~23℃
완주	구름 조금	6~26℃
구례	구름 조금	6~23℃
해남	구름 조금	6~24℃
홍천	구름 조금	9~25℃
순창	구름 조금	6~26℃
영광	구름 조금	7~21℃
진안	구름 조금	8~24℃
전주	구름 조금	5~25℃
정읍	구름 조금	10~18℃

서울 10~21℃, 대전 13~21℃, 대구 9~23℃, 부산 6~26℃, 울산 6~23℃, 광주 10~25℃, 목포 13~21℃, 여수 9~23℃, 완주 6~26℃, 구례 6~23℃, 해남 6~24℃, 홍천 9~25℃, 순창 6~26℃, 영광 7~21℃, 진안 8~24℃, 전주 5~25℃, 정읍 10~18℃

▲해돋이 05:28 ▲해질 19:30 ▲달돋이 16:07 ▲달질 03:10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씨						
최저/최고	11/26	13/25	14/22	12/25	13/27	13/28



“손 이렇게 씻으면 되나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애유치원 어린이들이 15일 오후 남구보건소에서 실시한 손 씻기 교육 ‘세균·NO! 클린 핸드’ 프로그램에 참석해 직접 손을 씻어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중고 사회 교과서 수정 검토 착수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적, 반사회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물어 교과서 내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반시장적 표현을 수정해 달라는 건의를 내는 등 역사, 경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에 따라 사회 교과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에 들

어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오류 등 337건의 문제점을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열어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연합뉴스

광주 교통시설, 장애인엔 ‘힘난한 길’

노약자 등 배려 부족

광주시의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에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 주요 교통수단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저상버스나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등이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945대 중 3.2%인 30대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

한 일반버스는 전무했다.

여객터미널의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점자블럭)은 출입문 18곳 중 4개만 설치됐으며 시내버스 정류장(2천 673곳) 가운데 69%(1천844곳)는 비가림이 불가능한 무개(無蓋) 승강장으로 조사됐다.

달개가 있는 승강장도 92%가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으며 그나마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주요 간선도로 정류장 턱높이는 82%가 기준치(15cm 이하)를 초과했으며 조사가 실시된 514곳 승강장

문제 점자블럭이나 음성안내 시설은 전무했다.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점자블럭도 19.3%가 부적정하게 설치돼 보완이 시급했으며 블라드(차량진입억제용기둥)는 조사한 5천여 곳 중 4천400여 곳이 부적합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5년간 1천72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보도, 터미널 등의 이동수단과 시설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를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까지 8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40대 남성 “두유 마시고 장염 걸렸다”

광산구청, 역학조사 의뢰

40대 남성이 두유 제품을 마신 뒤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김모(41·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7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산 J식품의 두유 제품을 마신 뒤 설사와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이튿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장염에 걸렸다고 진단했고, 김씨는 이후 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김씨는 “유통기한(2008년 7월 9일)도 한참 남은 두유였는데, 빨대로 한 모금을 마시자 상한 듯한 역한

새가 확 올라왔다”며 “나머지를 컵에 따랐더니 점점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구청인 광산구청은 김씨가 보관중인 문제의 두유를 수거해, J식품 공장인 광주 지사체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J식품 관계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를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병원비(36만원)를 지불하는 등 안전한 합의를 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입원 기간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놓고 김씨와 회사의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임현모 광주교대 총장
교과부에 사직서 제출

채귀석 전남도교육위원
유죄 확정 위원직 상실

현직 총장의 정치참여 문제로 구성원의 반발을 샀던 임현모 광주교대 총장이 최근 교육과학부에 총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2~3주 후에 결정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 총장은 현직 총장의 정치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임 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광주교대는 60일 이내에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2005년 3월 취임한 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정성필기자 camus@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귀석 전남도 교육위원(66·여수·구례·광양·곡성)이 위원직을 상실했다.

15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채 위원이 대법원의 유죄확정에 따라 교육위원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위원은 지난 2006년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여수 S초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위원이 위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차점자인 김성(66) 전 전남도교육위원이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

정혜원의 꿈

신가문점 959-5060 매곡점 576-8833

정혜원의 자랑할 주요리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정혜원의 자랑할 주요리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정혜원의 자랑할 주요리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ANYCHE CHAIR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유진에이치

Anyche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유진에이치

Anyche